

GIST, AI 융합 연구로 해외두뇌 유턴 이끈다

과기정통부·4대 과기원 '이노코어' 출범

박사후연구원 400명 채용 본격화... GIST는 뇌질환 조기진단 연구 주관

- GIST 등 4개 과학기술원 산·학·연 최상위 연구진과 박사후연구원(포닥)의 협력형 융합연구 추진
- AI모델·바이오·에너지 등 8개 연구단 선정, 해외설명회 등 포닥 400명 채용·유치 본격 착수
- 年 9천만원 내외 안정적 처우 보장 및 기업·연구과제 매칭 통한 추가 지원
- 국내 포닥 연구생태계 확충으로 박사급 인재 해외유출 방지 및 글로벌 인재 재유치 도모



▲ 이노코어 연구단 포닥 채용 해외설명회 포스터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상임, 이하 '과기정통부')와 함께 3개 과학기술원*과 공동으로, AI 융합 분야(AI+S&T*)의 첨단전략 연구를 이끌 '이노코어(InnoCORE)* 연구단' 8개를 선정하고, 국내·외 최고 수준 박사후연구원(Postdoctoral researcher) 400명 채용을 본격화한다.

* KAIST(한국과학기술원), DGIST(대구경북과학기술원), UNIST(울산과학기술원)

* S&T: Science&Technology

* InnoCORE : AI 융합 분야 혁신(Innovation)을 이끌 핵심(CORE) 연구인력을 육성한다는 의미

최근 유럽·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AI 및 과학기술 고급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, 국내에서도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.

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원은 이번 박사후연구원 채용을 통해 국내 박사급 고급인재의 두뇌유출 방지 및 재유치(리쇼어링), 해외 우수 신진인재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.

특히, 이번 사업은 과학자들의 국제교류와 이동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적극 활용하여, 국가 간 이동이 보다 용이한 우수 신진급 연구인력인 박사후연구원 유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.

◇ 이노코어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

이노코어 사업은 4대 과학기술원 출연금 사업으로, **AI+S&T 분야 중심으로 국내 우수 산·학·연 연구기관과의 협력형 융합연구를 지원한다.**

하지만, 이 사업의 더욱 중요한 목적은 국내외 최상위 박사후연구원 400명을 채용하는 박사후연구원 중심 집단·융합연구를 통해, **최고의 연구성과를 창출해 낼 우수 청년연구자로서의 성장과 국내 산·학·연 연구생태계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**하는 데 있다.

더욱이, 과학기술 분야 **AI 활용이 본격화***되는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, **AI 융합 분야 고급인재 양성에 초점**을 맞춘다.

* AI 활용 단백질 구조 설계·예측기술을 개발한 데미스 하사비스가 2024년 노벨화학상 수상

특히, AI를 중심으로 격화되는 전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확보 경쟁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시급성을 감안해, **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되었으며, 2025년 300억원(6개월분)을 시작으로 5년간 3,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**이다.

최근 딥시크의 사례*에서 보듯, 박사후연구원은 첨단기술 연구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발돋움할 성과 창출 잠재력이 높은 청년연구자임에도, 그간 국내에서는 임시직이라는 인식이 강해, 지원규모와 처우 등 국내 포닥생태계 확충을 위한 지원이 다소 부족했다.

* 중국 DeepSeek의 핵심 알고리즘 개발자들의 평균 연령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, 박사 후 2~3년차에 연구성과 창출

구체적 수치를 보면, 세계적 선도대학인 MIT의 경우 전임교원보다 **1.4배 많은 박사후연구원이 채용**되어 최첨단 연구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, **4대 과학기술원에 채용된 박사후연구원은 전임교원 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**했다.

더욱이 **4대 과학기술원 박사후연구원의 평균 연봉은 MIT의 41% 수준**으로, 국내 박사학위자가 미국 포닥으로 취업하는 등 고급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유출이 빈번한 상황이었다.

※ ('24. 전임교원 수) MIT 1,090명 / 4개 과학기술원 1,388명
 ('24. 포닥 수) MIT 1,534명 / 4개 과학기술원 792명
 ('24. 포닥 평균연봉) MIT 약 8만불 / 4개 과학기술원 약 4,800만원

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국내 정착과 국제적 연구자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포닥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, 동 사업을 통해 선발된 박사후연구원에게 연 9천만원의 연봉을 보장한다.

아울러, 해외에서 더 높은 연봉을 받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연구단 참여기업 또는 타 연구과제를 매칭해 추가 지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
◇ 8개 이노코어 연구단 선정

4개 과학기술원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(5.2) 직후,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▲AI모델, ▲제조AI, ▲AI바이오, ▲AI에너지 등 AI 융합 분야 8개 이노코어 연구단을 선정하였다.

이 과정에서 연구 혁신성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박사후연구원 채용 계획과 성장 지원계획의 구체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.

GIST는 이노코어 연구단 중 '뇌질환 조기진단을 위한 AI+나노융합 연구단'을 주관하며, 뇌질환 조기진단이라는 미래 의료 혁신 분야에서 AI·나노기술을 융합한 선도적 연구를 이끌 예정이다. 해당 연구단에는 전남대병원, KIST, Harvard 등 국내·외 우수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,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연구 기반을 구축한다.

< 8개 연구단 및 참여 연구기관 >

연구분야	연구단명	참여 연구기관
AI 모델	초거대언어모델 혁신 연구단	KAIST(주관) 등 4개 과기원, 서울대, 네이버, LG AI 리서치, Google, Meta, IBM Research
피지컬 AI	바이오 체화형 피지컬 AI 연구단	DGIST(주관) 등 4개 과기원, 서울대, UIUC(일리노이 대학 어바나 샴페인)
제조 AI	AI 기반 지능형 설계-제조 통합 연구단	KAIST(주관) 등 4개 과기원, LG전자, HD 현대중공업, 기계(연), MIT, UC Berkeley
AI+ 바이오	AI-혁신신약 연구단	KAIST(주관) 등 4개 과기원, 화학(연), 생명(연), KISTI, KIST, MPI(Max Planck Institute)
AI+ 바이오	뇌질환 조기진단을 위한 AI+나노융합 연구단	GIST(주관) 등 4개 과기원, 전남대병원, KIST, T3Q(의료 빅데이터 기업), Harvard
AI+ 항공·우주	AI-Transformed Aerospace 연구단	KAIST(주관) 등 4개 과기원, 서울대, MIT, DLR/NLR(독일/네덜란드 항공우주연구원)
AI+ 에너지	지능형 수소기술 혁신연구단	UNIST(주관) 등 4개 과기원, POSTECH, 서울대, 화학(연), Stanford
AI+ 에너지	AI-우주 태양광 연구단	UNIST(주관) 등 4개 과기원, 서울대, 화학(연), Oxford Uni.

8개 이노코어 연구단은 **과학기술원 간 융합연구뿐만 아니라 협업이 필요한 국내·외 산·학·연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단** 형태로 운영한다.

더욱이, **과학기술원 교원뿐만 아니라 참여 연구기관의 연구자가 복수로 박사후연구원 멘토로 참여하여, 이들의 출연연·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**이다. 선정된 8개 연구단은 6월 말까지 세부 연구계획을 구체화해, **7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** 예정이다.

◇ 박사후연구원 채용 계획

4개 과학기술원은 **연구단의 연구내용에 맞춰 포닥 400명 채용절차에 본격 착수**한다.

특히, 해외 우수 신진인재 유치 및 재외한인 신진연구자의 재유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, **해외 채용설명회 및 홍보 활동을 6월 중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갈** 예정이다.

해외 채용설명회는 **AI 융합 분야 박사급 고급인재가 밀집된 글로벌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** 진행한다.

▲6월 18일(수) 하버드, MIT가 소재하고 있어 한인 유학생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보스턴 지역을 시작으로, ▲6월 20일(금) KAIST-뉴욕대 공동캠퍼스와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을 운영 중인 뉴욕 지역, ▲6월 23일(월) 스탠포드 대학과 AI 빅테크 기업들이 위치한 실리콘밸리 지역까지 현지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.

또한, 글로벌 학술지 네이처(Nature), 사이언스(Science)와 링크드인(Linked In) 등 글로벌 홍보를 비롯하여, 참여 연구기관의 해외 협력기관과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(KOSEN), 재외한국과학기술자협회, 한인학생회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 및 적극적인 인재영입(헤드헌팅)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.

임기철 GIST 총장은 “AI 융합은 과학기술 전 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, 이를 선도할 **박사후연구원 유치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**”라며, “이번 이노코어 사업을 통해 국내외 우수 인재들이 GIST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원에서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하고, 국내 연구생태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밝혔다.

이어 “**AI 기반 융합연구의 허브로서, GIST는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래 인재 양성과 연구혁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**”이라고 강조했다.